

안 시퍼 (주)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 대표

“한국 인쇄업계의 친환경 발전일조할 터”

▶ 인터뷰 질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터스 컨트롤유니온 월드그룹의 한국법인인 (주)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는 전세계 50여 개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식품이나 원료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과 인증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이다.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의 안 시퍼 대표이사는 자사의 주요 업무의 하나인 FSC인증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인증은 인쇄 및 출판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친환경시대가 인쇄산업에 대한 갖는 중요성과 FSC인증제도, 앞으로의 한국에서 전개할 사업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인터뷰 질문

- 컨트롤유니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지요.

컨트롤유니온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로 지난 19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Mr. 피터슨이 회사의 창업주이며 최초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자국 내에 곡물 매매와 운송업을 영위했습니다.

1958년부터는 네덜란드를 벗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무역과 운송 사업을 전개했으며 제품의 검열 및 인증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곡물, 과일, 석탄,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제품의 분석실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FSC인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4천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품의 분석에서 검열, 관리, 운송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FSC인증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FSC인증은 지난 1993년에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산림협의회가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시스템입니다.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은 멕시코에서 시작되었으며 가공유통관리인증(Chain of Custody)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2009년 현재, 1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FSC인증제도는 산림훼손 및 지구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조성림과 여기에서 생산된 목재로 생산된 제품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경제와 사회,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FSC인증의 장점은 체계화되어 있는 세계적 인증이라는 점입니다. 인증표준의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지원이 이뤄지고 세계적 전문가들이 인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FSC에서 인정한 18개의 인증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을 비롯한 6개 정도의 업체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FSC인증이 인쇄 및 출판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CoC(가공유통관리인증)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성림에서 벌목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를 사용해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하는 과정에 관련된 인증이기 때문에 인쇄 및 출판업계와 관련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컨트롤유니온은 2005년 이래 FSC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업체인 에이버리데니슨의 전 공장에 대한 FSC인증을 하였으며 유럽의 대형 목재가구 체인인 감마, 이키아(IKEA) 등 1천개에 가까운 고객사들이 컨트롤유니온을 통해 FSC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쇄 산업에 FSC인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쇄 및 출판산업은 조성림에서 벌목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를 이용해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공유통관리인증에 해당됩니다. 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고유의 시리얼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책자나 브로슈어, 카탈로그, 패키지 등 제조 제품에 고유인증 번호가 적힌 FSC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제조된 제품인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품의 신뢰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환경보존활동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이와 함께 산림 보호와 지구환경보존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쇄사의 경우에도 생산한 각종 인쇄물이 친환경 과정을 통해 생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현재 한국시장에서 FSC인증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FSC인증을 받은 업체는 약60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일본의 800여개, 중국의 500여개는 물론 홍콩의 200여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서서히 FS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근접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FSC와 같은 환경인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FSC는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들 업체의 매장에 비치,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환경적인 부문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인증은 그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사의 경우에는 생산제품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유럽등 선진국에서 대기업 및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인쇄사들의 환경인증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어 아래에서 위로의 환경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 인쇄업계가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